

하상주보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3년 10월 1일
제1968호

기도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공동체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기뻐 뛰노나니”(루카 1,46-47)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일렀다.

그는 ‘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또 다른 아들에게 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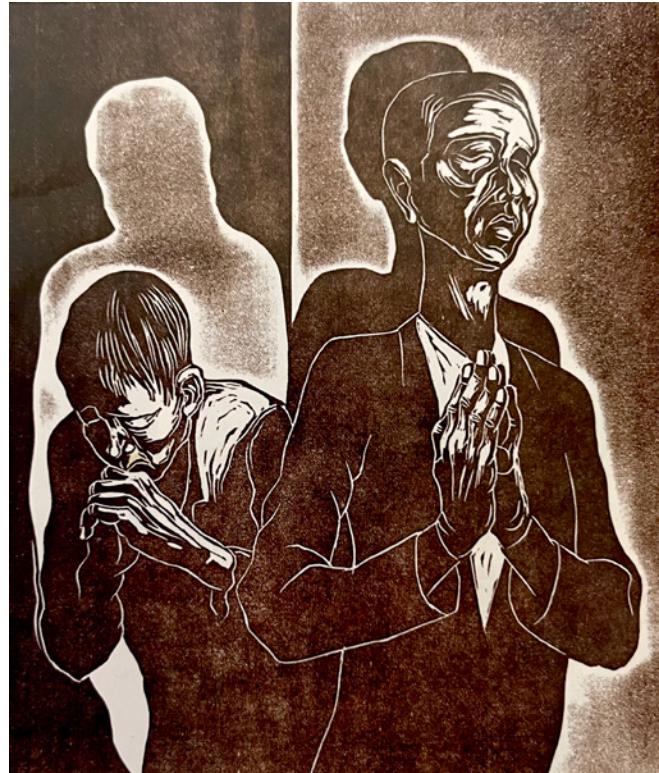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대답하였지만 가지는 않았다.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느냐?”

(마태 21, 28-31)



〈두 아들, 두 기도〉, 판화, 김의규 作

연중 제26주일 (가해)

제 1 독 서 **에제 18,25-28** | 악인이라도 죄악을 버리고 돌아서면, 자기 목숨을 살릴 것이다.

화답송 **시편 25(24)** | ◎ 주님, 당신의 자비 기억하소서.

제 2 독 서 **필리 2,1-11** |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복음 **마태 21,28-32** | 맏아들은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맏아들은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28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일렸다.

29 그는 ‘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

30 아버지는 또 다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대답하였지만 가지는 않았다.

31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느냐? ”

그들이 “맏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32 사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의로운 길을 가르칠 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성화 해설



〈두 아들, 두 기도〉, 판화, 김의규 作

두 아들이 기도를 바치고 있는데
오른쪽의 아들은 고개를 들고
거만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그 뒤에는
구원을 받지 못함을 상징하는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
왼쪽에 있는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를 바치고 있다.
그 뒤에는 자신의 그림자가 아니라
구원을 상징하는
주님의 모습이 흰 그림자로 나타나 있다.

〈정웅모 신부의 복음을 담은 성화〉

†복음 묵상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권한에 의문을 품으면서 세례자 요한을 거부하는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을(21,23-27 참조) 상대로 비유를 들어 그들과 벌이는 논쟁을 이끌어 가십니다.

비유 속 맏아들은 특권적 지위에서 그에 따르는 정치적 또는 종교적 지도력과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다른 아들은 이런 지위와 권리를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시면서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리와 창녀가 요한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믿었다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이 거부한 종교 지도자들은 맏아들의 모습과 반대되며 비난을 받기에 마땅합니다.

제1독서에서 하느님께서는 신 포도 속담을(예제 18,2 참조) 반박하시며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공평한 주님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따르면 의인이라도 불의를 저지르면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악인이라도 회개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제키엘 예언자는 구원을 얻는 데 과거의 행적보다 현재의 행적이 더 중요하다는 신탁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비유에 등장하는 맏아들은 회개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오늘 복음과 독서는 우리가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고 회개하여 ‘의인’이 되도록 촉구합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가운데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정진만 안젤로 신부〉

10월 묵주 기도 성월

교회는 해마다 10월을 ‘묵주 기도 성월’로 지낸다. 묵주 기도를 자주 바치는 가운데 예수님과 성모님의 신비들을 깊이 묵상하며 믿음을 더욱 깊게 하려는 것이다.

묵주 기도 성월은 10월 7일의 ‘묵주 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과 관련이 있다. 16세기에 이슬람 제국이 로마를 침공하였을 때, 비오 5세 교황은 그리스도교 국가들과 연합군을 편성해 대항하였다. 1571년 10월 7일 연합군은 묵주 기도를 바치고 전쟁터에 나가 레판토 해전의 승리를 거두었다. 이 승리의 날을 기억하고자 비오 5세 교황은 ‘승리의 성모 축일’로 정하였고, 훗날 ‘묵주 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로 이름이 바뀌었다.

묵주 기도가 널리 확산되면서 1883년 레오 13세 교황은 이 10월을 ‘묵주 기도 성월’로 정하며 세계 평화와 죄인들의 회개를 위하여 묵주 기도를 자주 바치자고 권고하였다. 바오로 6세 교황은 묵주 기도를 ‘복음서 전체의 요약’이라고 강조하였다.

성 베드로 대성당 외벽에 선 김대건 성인상



성 김대건(안드레아) 신부 순교 기념일인 9월 16일 성 베드로 대성당 외벽에서 한국 순례단이 함께한 가운데 성 베드로 대성당 수석사제 마우로 감베티 추기경이 김대건 성인상 축복식을 주례하고 있다. 성인상은 갓을 쓰고 도포를 두른 전형적인 우리나라 선비의 복장에 영대를 걸친 사제의 모습을 하고 있다. <가톨릭신문>

묵주 기도 성월

성모 찬송

- 모후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 귀양살이 끝날 때에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 기도합시다.
-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 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 아멘.

1 구역 임원 교육

- 일시 : 10월 1일(일) 오전 11:30 (B-1,2)
- 구역 임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 메디케어(Medicare) 교육 세미나

- 일시 : 10월 1일(일) 10시 미사 후
- 장소 : 친교실 (A 1-2)
- 강사 : 정문기 월리엄 (703) 598-3316

3 병자 영성체

- 일시 : 10월 6일(금)
- 신청 : 정문기 월리엄 (703) 598-3316 / 성당 사무실
- 매월 가족이 직접 신청해 주세요.

4 연중 영화 상영

- 일시 : 10월 6일(금) 오후 8시
- 영화 제목 : 파티마의 기적
- 세계 3대 성모 발현지인 포르투갈 파티마의 체험자인 루치아 수녀(소녀 브라가)가 들려주는 성모님 발현 이야기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5 토요 신심 기도 및 미사

- 일시 : 10월 7일(토) 오전 10:30 (첫 토요 신심 미사)
- 파티마 사도직 기도회 : 오전 9시
- 토요 신심 미사에 함께해 주시기를 청하며, 토요일 새벽 미사는 없습니다.

6 결혼 희년 미사 안내

- 결혼 25주년(1998년), 50주년(1973년)이신 분들을 위해 교구에서 기념 미사를 봉헌합니다.
- 일시 : 10월 15일(일) 오후 3시, St. Agnes 성당 (주교님 집전)
- 신청 :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10월 2일(월)**까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 유아세례

- 일시 : 10월 7일(토) 오후 2시
-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 단체장 회의

- 일시 : 10월 8일(일) 오전 11:30 (A-1,2)

9 꼬미시움 월례 회의

- 일시 : 10월 8일(일) 오전 11:30 (하상관 #4,5)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요한 21,17)

10 미 동중부 성령 묵상회

- 일시 : 10월 14일(토), 10월 21일(토)
오전 9시 - 오후 6시
- 주제 : “성령과 물과 피인데 이 셋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요한 1서 5,8)
- 우리의 삶에서 삼위일체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며 성령 안에서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시는 신자 분들을 초대합니다.
- 장소 : 성 정 바오로 성당
- 접수 : 8시, 10시 미사 후 친교실
- 참가비 : \$50 (점심 제공)
- 문의 : 박 수산나 (703) 909-2980

11 청소년 견진성사 미사

- 일시 : 10월 25일(수) 오후 7시
- 교구장이신 마이클 버벳지 주교님께서 집전해 주십니다. 주교님의 공식 방문인 청소년 견진성사 미사에 주일학교(CCD, CYO)를 비롯한 모든 신자분들이 참여하여 주교님을 맞이해 주시고 견진성사의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지

주교좌성당
성 정하상 바오로 성상과
성화 스테인드글라스 기금 모금



알링턴 교구 50주년 기념사업인 주교좌성당 재건축에 마이클 버벳지 주교님께서 총 18개의 창문 공사 중 하나님의 창문에 본당의 주보성인이신 성 정하상 바오로 성상(1m70)과 성화 스테인드글라스(위 그림 참조)를 봉헌할 수 있는 은총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교구 내 다문화 공동체의 대표 본당으로의 자부심과 감사의 마음을 모아 성상과 스테인드글라스 공사 기금 마련에 전 신자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봉헌물 : 성 정하상 바오로 성상과 성화 스테인드글라스
- 본당 목표 금액 : **\$100,000**
- 현재 모금액 : **\$55,473**
- 모금 방법 : 준비된 봉투에 체크나 현금으로
 정정 후 제출(평일 사무실)
 체크 Pay to order는 St Paul Chung,
 메모에 ‘주교좌 성상’
- 모금은 이번 주일에 마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효도 한마당 잔치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3년 9월 24일

(연중 제25주일 /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 | | |
|-----------|-------|--------------|
| 봉헌금 | | \$ 7,767.70 |
| 교무금 | | \$ 6,740.00 |
| 교무금(신용카드) | | \$ 4,470.00 |
| 감사 현금 | | \$ 190.00 |
| 온라인 봉헌 | | \$ 3,787.00 |
| 합계 | | \$ 22,954.70 |

※ 주일헌금 및 2차 현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버지니아 성 정 바오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 30, 830
Fios Ch. 30

10월 5일(목) 오후 5:00 - 6:00
10월 6일(금) 저녁 8:00 - 9:00
10월 8일(일) 오전 6:00 - 7:00

1. 주일 강론

2. 그래서 오늘은 신비롭다 : [25회]

- “네가 맑아서, 맑아서.”
- 김대우 모세 신부

● 교황님의 10월 기도 지향 |
시노드

교회가 모든 차원에서 경청과 대화를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여 세상의 변방을 향한 성령의 이끄심에 자신을 내어 맡기도록 기도합시다.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 | | |
|-----------------|---|------------|
| 주일미사 | · 8:00 AM · 10:00 AM(교종미사) · 2:00 PM(학생미사) · 5:00 PM(청년미사) | |
|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 · 7:30 PM | |
| 월, 목, 토 | 화, 금 | 수 |
| · 6:00 AM | · 7:30 PM | · 11:00 AM |